

# 교육실습 소감문

## 1. 두런두런 나의 이야기

어릴 적부터 나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나의 장래희망 란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선생님(교사)'였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여러 내 마음에 인상 깊었던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자라났던 내 꿈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며 더 크게 커가곤 했었다. 자연스럽게 나를 몰들었던 교사라는 꿈.

그리고 특히 '국어'로 과목을 정하게 됐던 건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어릴 때부터 동화책, 만화책, 위인전, 세계명작, 청소년성장소설 등등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남동생과 단짝친구와 셋이서 카페를 만들어 소설을 쓰고 공유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곤 했었다. 그 당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포함해 총 9편을 집필하였고, 장편소설의 경우 A4 용지로 2~300쪽 정도 되는 것도 있을 정도로 취미가 '소설쓰기'였던 나는 나름 문학소녀였다. 고등학교 때는 비록 대입을 위한 학교 시험공부로 인해 소설을 쓰지는 못했었지만, 문득문득 힘이 들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었던 건 한 편의 글쓰기(수필)였다. 즐거울 때도 물론 좋은 것이 문학이지만, 특히 힘들 때, 어딘가 억눌리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할 때, 글이 가지는 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실히 느꼈으며, 이렇게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문학의 힘을, 그리고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나의 꿈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나는 자연스럽게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특히 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글'을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사범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교육실습'. 다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새싹이 꾸물거리며 돌아나는 어느 봄날. 교생실습을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은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그 안에 나만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 2. 내가 꿈꾸는 교사상

-너의 것인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너'를 기다리며

저는 어릴 때부터 막연한 동경 속에 선생님을 꿈꿔왔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희망이 '선생님'에서 바뀌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저는 마음속 어디에선가 저의 미래를 그렇게 꿈꾸고 있었나 봅니다.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했고 존경했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계기로 꿈을 만한 게 있다면,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이 계속 저의 꿈과 희망을 자라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이타니 겐지로씨의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책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일본 소설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마음이 벅차오를 만큼 선생님을 꿈꾸게 해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고다니 선생님'과 작가이자 초등학교 선생님인 하이타니

겐지로씨는 제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꿈꾸고 그려왔던,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후 읽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도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온 친구의 제안으로 소설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작품은 우정을 주제로 한 것이었는데, 한 어린이 포털사이트 공모전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제 친구와 남동생과 함께 카페를 만들어 각자 소설을 쓰고 서로의 글들을 공유하고 실시간댓글과 답글을 달면서 생각과 느낌들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학창시절 취미였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때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 소설을 쓰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문학 공모전에 참가하고 학교 교내의 문학이나 독서 관련 대회에 참가하면서 꾸준히 수필이나 감상문, 보고서와 같은 글을 씁니다. 되돌아본 저의 과거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절은 중학교 시절이었고, 제 인생에서의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전제 이야기를 수필로 담아 써보면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저의 미래를 그려보며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는 제게 정말 특별하고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글이란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마음을 울릴 수도,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아름답고도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글 중에서도 특히 우리 문학 작품들을 읽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국어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인지체장애를 가진 친구의 공부를 도와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특히 글을 읽는 것에 미숙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7년간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리 내어 책을 읽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책의 내용에 대해 서로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는 책 읽기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역시 친구를 도와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읽기 능력이 학습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가르치고 돕는 일이 곧 배움의 과정임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제게 현재진행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적천석=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것은 저의 교육 신념이자 생활신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또 한결 같은 자세로 사랑을 표현해주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학생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항상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교사가 된다면, 저는 아이들이 국어시간을 재미있고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시인이나 소설가의 인생 이야기를 해줄 때,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설명해주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 경험 등을 적절하게 예로 들어 우리 삶의 연관성을 보여주어 흥미를 유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답하게 하면서 참여하는 수업을 조성하고 때로 문학작품토론 수업을 하는 것에 더해 단편소설이나 시 등 글쓰기 수업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책이라면 직접 구입하여 교실 책장에 꽂아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3. 왜 상계고등학교였는가?

사범대학생들은 보통 4학년 1학기(주로 4월이나 5월)에 교생 실습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지만, 교생을 다녀올 학교와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일정을 잡는 것은 이미 3학년 2학기, 그것도 9월경에 이루어진다. 나는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다니게 되었는데, 상계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상계고 학생들 역시 내가 왜 상계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며 물어오곤 했다. 상계고는 남고여서 당연히 내 모교도 아닐뿐더러 집이 매우 가까운 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에 학교와 연락을 구해서 빨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있는 대로 학교들을 알아보고 연락을 했었다. 우선 모교로 가지 못했던 것은 작년 봄에 다소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다. 만일 모교로 교생을 나가게 되면, 지하철만이 아니라 버스까지 타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교생 실습 일정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내가 다닌 모교들은 중고등학교 모두 공립 학교여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전근을 가셔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모교의 큰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또한 나의 현재 집이 위치해 있는 지역구 소재의 고등학교들도 알아보았는데, 평이 좋은 학교들에서는 모두 내가 모교 졸업생이 아니며 대학 부설 고등학교의 경우 그 해당 대학의 학생이 아니면 어렵다면서 번번이 거절당했다. 나름 열심히 조사해서 알아본 대여섯 군데의 학교에서 줄줄이 거절당하자, 지친 나는 선배의 추천 학교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그 학교가 바로 상계고등학교였는데, 선배가 작년에 바로 다녀온 학교로, 교생을 잘 받아주시는 편이고 선생님들께서도 교생에 우호적인 편이라는 이유가 그것이었다. 게다가 작년에는 교생이 약 열 명 정도였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도 아닌데 교생이 그렇게 많이 다녀간다는 것에서 교육실습을 다녀오면 참 좋을 학교로 여겨졌다. 교통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역구가 다르고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편이었지만,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올 수 있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다행히 나는 허락을 받았고, 이미 다음해에 오기로 신청하고 한 학생들이 두어 명 정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음해 봄의 교생 일정을 기대하며 나를 바로 친절하게 받아주신 상계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다녀오기로 결정하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16년의 봄날이 되었고, 3월쯤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실습 일정 전에 OT(오리엔테이션) 일정을 공지 받았다. 그런데 학교로 OT를 다녀온 나는 다소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 교생을 하기로 했던 두 명이 취소를 해서 올해 교생은 나 혼자라는 것이었다. 고난이 시작된 기분이었다. 작년 교생 열 명 이야기를 들었던 나로서는 당연히 교육실습을 하게 되면 동기들이 있을 줄 알았고, 서로 의지해가며 즐겁게 교생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학교는 나와 성별이 다른 남학생들이 우글거리는 남고였다. 즐거울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며 마음껏 수다도 떨고,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위로해주며 토닥여줄 말 상대, 그저 동료라는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남고에 혼자 떨어진 어느 여교생의 이야기, 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 4. 교육 실습 일정

교생이 나 혼자라는 건 교육 실습 일정도 주로 나를 대상으로 1:1로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교육 실습에서 각종 부장 선생님들로부터 받게 되는 교육도 1:1로 일정을 맞춰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담화를 나누며 상담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교생이 혼자이니 교생실 제공도 어려워서 2학년부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고, 교생들 대표를 정해 교생 대표 수업 및 평가회를 하게 되는 것도 순전히 다 내 몫이 된 것이었다. 교생이 혼자이니 대표 교생은 당연히 내가 되는 것이었고, 그러니 교생 대표 수업인 연구 수업도 당연히 내가 해야 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관해 평가를 하게 되는 연구 수업은 지원자나 보통 교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휴학 등을 하지 않아서 바로 23살에 교생을 나오게 된 나와 같은 여자 교생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 내게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다. 모교도 아닌 낯선 남고에서 교생이 나 혼자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연구 수업까지 맡게 되었다니, 부담이 확 가중되었다.

게다가 교육 실습 마지막 주인 4주차가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을 한 주씩 앞당겨서 진행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육실습 일정이라면, 1주차는 보통 부서별 교육을 받고, 2주차에 수업 참관을 하고, 3주차에 여러 반에 몇 번의 수업들을 하고, 4주차에 교생 대표 수업을 하며 평가받고 정리하게 되는데, 1주차에 부서별 교육을 받는 데 더해 바로 수업 참관을 시작하고, 2주차에 수업을 해보게 되고, 3주차에 교생 대표 수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주	계획	업무
1주	관찰기	부서별 교육, 수업 참관
2주	참관기	실제 수업
3주	실습기	교생 대표 수업
4주	정리기	시험감독 보조, 정리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은 순식간에 큰 부담감으로 축 쳐져 버렸다. 실습 일지, 명찰, 실내화 등을 미리 준비해둔 나는 교생 실습을 시작하기 전 주말에 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산책을 나가 햇빛을 쏘이며 단단히 마음 준비를 했다.

#### 4. 솔직하고 자유로운 교생 일기

4월 한 달 간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고등학교에서 교생을 하면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오가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내가 주로 즐겨 사용하는 SNS에 ‘교생일기’를 게재했었다. 그날그날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기록하는 것만큼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고 자유로운 나의 한 달간의 교생 일기를 글 형식으로 약간씩만 수정하여 그대로 실어보고자 한다.

1) (교생실습 1주차) 2016. 4/6. (수)



교생실습, 남고에서 교생은 나 한 명...

전교 1200명이 넘고 40학급으로 비교적 큰 학교에서 1, 2, 3학년이 대거로 우르르...

나는 2학년 2반을 학급 반으로 맡았는데, 오늘 이 사진을 찍은 아이들은 심지어 담당 학급도 아닌 1학년 아이들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인기를 경험하는 중이다.

의자도 들어주고 책도 들어주는,

자기네 명찰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는(바치는),

‘어디서 내가 “ 쌤~ ”하고 쫄쫄 따라다니는 이런 팬들을 얻어 보겠는가?’하고 생각해 본다.

2) (교생실습 1주차) 2016. 4/7. (목)

‘교생실습’이 아니라 ‘고생실습’인 듯... 미술 수업참관을 했는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역시 진짜 그림 못 그려...^^; 쉬는 시간이 되자 다들 튀어나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한다. 이 아이들도 우리 반은 아닌데... 어제 1학년에 비해 역시 좀 나이 든 티가 나는 2학년들. 단체 사진만 같이 찍어주었다.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었다. 눈이 붙을 지경이다... 방과 후 상담을 하는 학생이 나를 한 시간이나 붙잡고 있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결국 지하철역까지 같이 퇴근했다.



3) (교생실습 1주차) 2016. 4/9. (토)

어제 들어간 1학년 반은 예고 없이 들어간 반이었는데,  
 우연히도 애들이 칠판에  
 “교생쌤 보고 싶다”  
 라고 크게 써놓은 것이었다.  
 나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웃으시고는 앞에 와서 5분간 인사하라고까지 하셨다.  
 윤리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장기매매 찬반’에 대한 자유로운 발표-토론 수업을 하셨는데, 돌발질문으로 내게 의견을 발표해보라는 요청을 하시기도 했다.  
 한편, 아래층 1학년 사생팬(?)들이 교무실 내 자리에 포스트잇 쪽지와 함께 레몬녹차와 바나나우유를 놓고 가기도 했고,  
 중간 중간 2, 3학년 학생들은 사탕이랑 비타민을 주기도 했다.  
 5일 연속 피로 누적에 눈 밑은 다크써클이 내려와 어둑어둑해지고 검댕이가 되어갔지만,  
 그래도 비타민이 되어주는 학생들!!



4) (교생실습 2주차) 2016. 4/12. (화)



1학년은 (2,3학년보다는) 귀엽다.  
 아직 시골벽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젊으신 남자 수학 선생님 수업참관을 했더니, 종례 끝나고 자신이 담임 맡은 반에 와서 애들과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셔서 이번엔 뭔가 칠판 앞에 서서 찍은 공식적인 사진이다.  
 그리고 오늘은 꽃 받은 날.  
 봄에 교생하면서 제일 받고 싶었던 게 뭔가 무심코 꺾어다주는(?) 주워서 갖다주는(?) 꽃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반 꺾렁이 한 명이 꽃을 꺾어주었다.  
 “이거 가다가 주웠지 말입니다.”  
 태후 안 본다면서 송중기 따라하는 말투.

항상 같이 다니는 귀요미 한 명도 예쁜 꽃을 꺾어주었다.  
 1학년 애들을 경계하듯 쌤에게 보낸다는 커다란 하트도 그려서 선물로 주었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부터 이제 수업이라니 내일 쉬어도 부담은 크리...

5) (교생실습 2주차) 2016. 4/14. (목)



테니스치마 입고 테니스 치기.  
2교시 우리 반 체육 수업참관을 했더니  
(4월에는 학교 행사가 거의 없어서  
우리 반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방법을 찾다  
가 생각하게 된 것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체육 수업 참관을  
하는 것이었다.)  
애들 테니스-축구-농구도 구경하고  
나도 테니스를 배울 수 있었다.  
체육 선생님의 일대일 특별코치.  
매일 교실이나 교무실에 앉아있거나 서  
있다가  
바깥 운동장 경기를 마시니까 좋군.  
내일은 농구도 해야지.  
드디어 우리 반 귀요미들과 찍은 사진!

6) (교생실습 2주차) 2016. 4/15. (금)

오늘부로 벌써 반이 지났다…!!

어제가 첫 수업이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작품(속미인곡)으로서는 첫 수업을 했다.

어젯밤까지 준비하느라 3시간 잤던 건 함정….

수업참관을 하면서 교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만 익숙하다가, 이제 앞문을 열고 애들과 수업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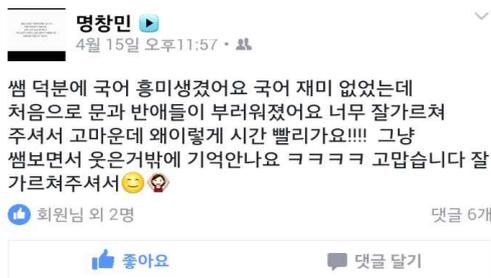
이 아이들이 오늘 첫 타임이었는데,  
1교시였는데도 자던 애들까지도 거의  
다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크나큰 감동…,  
나는 진도 빼는 수업이 아니고 '시범  
연구수업'이다 보니 모둠별로 책상  
돌리게 해서 모둠별 토의 학습도 시  
키고 상황극도 시켰는데, 열심히 해  
주니 어찌나 예뻐던지 모른다.  
나중에 애들이 같이 사진찍자고 해서  
한 컷.  
그리고 (이과 반이었는데) 문학 수업  
은 보통 지루했는데 이렇게 귀에 쏙  
쏙 들어오는 재밌는 수업은 처음이었  
다고….

3교시에 따라 들어와 주신 선생님께서도 칭찬해주셔서 몸은 피곤해도 기운이 돌아났다.  
 그리고 오늘은 방과 후에 애들이랑 농구도 했다.  
 말로만 하자하자하다가 정말 오늘 딱 하게 되었는데 느낌이 새로웠다.  
 애들이 야자까지 늦어서 매 맞을 각오하고 농구를 같이 해주었다.  
 나중에 한대씩 살짝 맞았다는 일화가...  
 우리 반 학생들과는 특히 친해져가고 있고, (대신 내 퇴근은 늦어지지만...)  
 나도 밝은 기운을 물려받아 같이 에너지가 샘솟는 요즘이다.

7) (교생실습 2주차) 2016. 4/16. (토)



햇살 아래서  
 농구 코트에서  
 찍었던 사진 한 컷.  
 어릴 때 내 기억엔 경기해도 분명 반코트로 주로  
 했었는데...  
 인원이 많아서인가 한 코트로 했다.  
 정말 재밌었다!  
 “나 농구 좋아해~”  
 애들한테 말만 하다가  
 드디어 같이 한 날.  
 이 날 농구하려고 일부러 바지를 입고 갔었지.



또 어젯밤 한 학생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어제 나의 국어 수업을 듣고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었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우셨다고,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고 감사하다고...  
 그 한 아이만으로도 눈물 날 것 같은 감동  
 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그나저나 교생실습 어느덧 반이 지났다.  
 덕분에 주말까지 못 놀고 봉사하고 과제하  
 고 수업 짜고는 있지만, 끝나면 열심히 여  
 행계획도 짜고 친구들과 만나 놀아야겠다!

선생님때문에 진짜 동기부여  
 많이됐어요 ㅠ 저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드림쳐서 예고 시험보고  
 붙어서 가려했었는데요 막판에  
 부모님이 밀어주시다가 반대하셔서  
 고1까지 드림 핑계로 공부를  
 안했어요 ㅠㅠ 근데 진짜 쌤만나고  
 나서 어차피 예고 드림쪽으로 안간거  
 제대로 공부해서 대학가려고요!!  
 드림은 취미로도 칠수있고 시간나면  
 칠수있는건데 드림친다는  
 핑계만으로 공부안한다고 부모님  
 속만 썩었어요 ㅠㅠ 3월달 되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원을 다니는데  
 엄마몰래 학원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안그럴라고요 진짜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고 남이 놀때놓고 실때 쉬는  
 선생님처럼 좋은 직업가질래요  
 고맙습니다 ㅠ 오늘 엄마한테  
 공부열심히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재밌게  
 잘가르쳐주시고 동기부여 진짜  
 제대로됐어요!! 공부열심히해서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가질래요

그리고 공부열심히하고 좋은직업  
 좋은직장 다녀서 쌤처럼 이쁜 분  
 만날거예요 ㅎ 선생님 29일에  
 간다고 연락안하면 안되요 ㅠ 진짜  
 고맙습니다아아아아아

안녕히 주무세요 폭자세요 쌤!!

8) (교생실습 3주차) 2016. 4/18. (월)



주말보다 학교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건, 그냥 하는 말일까 진심일까?

다시 수업 듣고 시험 보러 돌아가기는 점점 더 싫어진다.^^;

오늘 우리 반 반장에게 받은 감동의 작품.. 직접 2~3시간 걸려 만든 수공예 선물.

우선 코난 같은 만화 캐릭터를 닮아 귀엽게 생긴 데다 전교에서 인정할 정도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다.

“저는 악어새입니다.”

지도 교사 선생님의 자칭 별명이 악어이신 이유로, 나는 자동적으로 악어새가 되었다.

오늘 급식에 나온 우정의 빼빼로 선물을 준 학생들.

빼빼로 다섯 개였는데 우리 반 X준이들에게 두개를 빼앗겼다.

오후 9:39

오늘 1학년9반 수업 들어와주셔서 감사해요ㅎㅎ진짜 저희반 들어오실줄 몰랐어요..배를 매며 수업 재미있었어요! 기말고사 때까지 안잊고 기억할게요!! 저희 반 들어오셨는데 제대로 인사를못했어요 워낙 제가 낮가리고 습기가 없어서...😓하여튼 들어와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릴라구요 폐메하지말라고 하셨는데 타임라인에 올리기엔 좀 그래서요..ㅎ그냥 답 안해주셔도 좋으니까 읽어주세요 많이감사해요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하루!



한편, 7교시 1-9 학생들도

나의 국어 수업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역시 1학년은 아직 2~3학년들 보다 순수한 편이고 티 없이 맑다.

들어가자마자 다른 반 애들까지 다닥다닥 창문에 붙어있고 크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거의 한 명도 자지 않고 앞을 초롱초롱 바라보던 눈빛이란...

아마 잊을 수 없을 거야.

활기 넘치고 분위기가 참 좋았다.

방과 후에 우리 반 아이들 집단 상담이 끝나자 거의 6시가 되고 비가 후두두 내리고 있었다.

우산 빌려준 우리 반 OO 친구들도 참 고맙더라.

오늘도 집단 상담하느라 퇴근이 원래 4시 20분인데 거의 6시가 되었지만...

추억을 쌓아가는,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9) (교생실습 3주차) 2016. 4/19. (화)

요즘 하루 3~4시간을 잤더니, 아주 눈이 붙을 듯 힘들다.  
오늘은 방과 후 상담을 미루고 집에 가려는데, 애들이 붙잡는다, 상담실까지 빌려서...  
그래서 약 한 시간 일대일이 아닌 집단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뭔가 힘을 얻었다!  
교생이 나 하나뿐이어서 중요하고 높으신 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참관하시는 대표연구수업도 당연히 하게 되었는데, 수업준비가 의외로 훨씬 만만치가 않았다.  
연구수업 대상인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가 매우 산만한 편이어서 조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리배치나 팀원 구성 등에 있어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다. 또한 우리 반 교실의 열악한 빔 상태 때문에, 수업 교실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청소나 책상, 의자 배열 등 교실 환경 준비 등 할 일도 고민할 것도 많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듯 아팠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자 애들이 너도나도 적극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정말 너무 예쁜 우리 반이다.

9) (교생실습 3주차) 2016. 4/20. (수)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수업을 하는 중이다.  
총 8번의 수업을 했고,  
내일 평가 받는 연구수업까지 하면 도합 9번의 수업을 하게 된다.  
수업은 하면 할수록 새롭고,  
그래도 빨리 들어가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속미인곡은 이제 나름 마스터다.  
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수업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걸 보면 학생들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곤 한다.

10) (교생실습 3주차) 2016. 4/21. (목)

오늘은 정말 대망의 날이므로 일기를 남겨보려 한다.

교생들 중 한두 명이 대표로 공개 수업을 하게 되는, 교생대표수업, 연구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교생은 나 혼자라서 당연히 연구수업도 내가 수업하게 되었다.

여러 선생님들이 뒤에서 참관하시는 만큼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침부터 비가 와서 주변도 어둑어둑하고 나도 학생들도 분위기는 축 처지는 것만 같았다. 교실도 빔 프로젝터 때문에 원래 우리 반 교실이 아닌 다른 (잘 사용하지 않는) 교실에서 해야 했기에. 빔도 설치하고 시계도 고치고 책상 배열도 하고 청소도 해야 했다.

다행히 예쁜이들 대여섯 명이 기꺼이 도와주어서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다.

무사히 수업을 잘 마치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교생수업 최고였다고 칭찬만 잔뜩 해주셨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잘했던 점들, 좋았던 점들 외에도 부족했던 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지도교사 선생님은 경력 있는 선생님도 아니고 무조건 잘한 거라고...

애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악어쌤인데,

사실 이럴 때 깐깐하시지도 않고 푸근한 정이 가득 느껴져 좋다.

이번 연구수업을 기점으로 나의 9번째 수업 일정이 끝났다.

이제 내일은 학생들도 거의 풀 자습이라 폭 쉬고, 다음 주는 중간고사라 학교 급식도 없고 일찍 끝나게 된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과 함께 나의 교생실습 일정도 끝이다.

11) (교생실습 3주차) 2016. 4/22. (금)



오늘부로 3주차도 어느덧 끝...  
마지막 4주차는 애들 시험기간이어서 일찍 끝나지만,  
그 마무리는 다소 싱겁게 끝날 듯하다.  
그간 애들이 사주거나 만들어준,  
갖다 준 선물들이다.  
음료수들 몇 개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찍어둔 사진들만 모아봤다.  
정말 모두 다 고마웠지만,  
특히 무심한 듯 꺾어준 꽃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12) (교생실습 4주차) 2016. 4/26. (화)

교생실습의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주인 4주차는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이다.

나는 (1~2교시) 2~3학년 시험감독 보조를 들어가고, 시험이 끝나면 교사본부에 내려가 교무부에서 하는 일인 시험지 개수 확인, 도장 점검 등을 하며, 다시 (3~4교시) 1학년 시험감독 보조를 들어가고, 시험이 끝나면 역시 교사본부에 내려가 일손을 돕는다.

하지만... 이걸 분명 너무 무리한 살인스케줄이다.

(주변 선생님들께서 다 보통 선생님들은 한번만 감독을 들어가시는데 두 학년의 시험 감독을 연달아 들어가고, 또 이어서 교무부 일까지 돕는 건 너무 힘든 일정이라며 우려하셨다.)

점심 급식을 안주시고 일찍 퇴근시켜주는 시험 기간이더라도, 요즘이 제일 힘들어서 교생실습의 악역(좋지 못한 기억)이 하나쯤 생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사실 시험 감독은 굉장히 널널하고 여유로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애들이 엎드려 자는 공기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애들 뒤통수를 한 시간 반 넘게 바라봐야 하는 감독이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었다. 수업 참관이나 실제 수업 진행보다 훨씬 힘든 것 같다.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희망을 찾아보려고 어제는 학급게시판 뒤편에 붙어있던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를 외웠고, 오늘은 2017 대입을 치르게 될 3학년의 입시를 공부해봤다.

손으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잠잠히 기다리다보면, 침묵을 배우게 되고, 또 여러 생각들에 잠기게 된다. 문득 나의 학창시절도 떠올랐다.

시험 날이면 잔뜩 긴장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3시간 자고 새벽5시에 일어났었다.) 시간이 부족하면 덜덜 떨어가며 시험 문제 열심히 풀고 점검했던 기억들...

오늘 들어간 3학년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을 데려왔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애들은 "왜 하필 오늘이예요?"하는 반응을 보였다.(사실 3학년 교실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었었기 때문이다.)

한편, 1학년 교실에서는 난리가 났다. 다들 뒤를 돌아보고 온 팔로 하트를 만들어주고, 다가와서 큰소리로 꾸벅 인사를 하고, 시험은 망해도 된다면서... 피곤함에 폭 쓰러질 것 같았는데 정말 '비타500' 같은 아이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지 정말 고마웠던 아이들!

13) (교생실습 4주차) 2016. 4/28. (목)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전해줄 선물준비를 마쳤다.  
선물 고르기,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1. 카카오톡 섬유탈취제(향수)
2. 동물 후레쉬 볼펜(4종)

(펜의 윗부분에 달린 동물 인형을 누르면, 야광 불빛이 나오면서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  
밤에까지 불을 밝혀가며 열심히 공부하란 의미를 담아 결국 이 볼펜을 선물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환호하며 좋아했다.)

3. 곰돌이 모양 필통
4. 스터디플래너

이 리스트를 두고 며칠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손 편지. 우리 반 28명에게.  
쓰고 접고 쓰고 접고..., 쪽지 모양으로 접기. 덕분에 며칠 밤잠은 못 잤다.  
이제 드디어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ps.

어제 시험 감독하면서 외운 시의 구절 인용.

(김춘수-꽃)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5.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

실습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주로 국어, 문학 수업들을 참관하면서 좋은 수업을 생각하기에 앞서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생각해보았다. 먼저, 작품 감상의 틀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구는 이러한 의미이다, 라고 정해주는 등 문학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업이 많았다. 그리고 작품 위주로만 설명을 진행하다보니, 교과서의 서론과 같은 부분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문학 감상의 가치들이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대수능 EBS 연계 정책 탓에 수업 교재가 아예 EBS 교재이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어느 정도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가 너무 과해서 학교 수업인지 학원 강의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하지만 역시 만족스러운 수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이 좋았다. 수업과 교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전해졌을 때,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와 열정이 상승했던 것 같다. 더불어 교과 지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느껴질 때 더 집중이 되었다. 그리고 교사가 특정 수준의 학습자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들, 특히 공부를 잘 안하는 아이들도 끌어갈 수 있는 수업이 좋았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

첫째, 수업과 교과에 대한 교사의 열정,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과에 대해서는 연구와 최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수업에 있어서는 각종 교수방법에 능해야 하고,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와 삶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좋은 수업이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학습 동기도 상승하며 수업의 질이 올라간다.

셋째, 이 수업(교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최소한 얻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식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 교과를 예로 든다면,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 년도 등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이상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길러진 역사 인식이나, 현재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나 방향성이 될 수 있다. 국어 교과를 예로 든다면, 사미인곡의 정보나 해석을 암기하는 것 보다, 이러한 문학 작품이 나의 삶에 주는 명제 혹은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 누구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잘 할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이다. 이러한 흥미 유발은 교사가 교과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있어야 하고, 교과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도움을 주었는지, 자신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왜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 6.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수업에 대한 고찰

실습 경험을 통해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하는 의문점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실습 기간 내내 나의 가장 큰 고민과 고찰의 주제였다.

교생이 혼자라는 조건 덕분인지 많은 수업들에 참관하면서, 국어 수업도 거의 열 명 정도의 선생님들의 수업들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같은 내용이지만 교사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수업 참관을 할 때 가르치시는 내용보다도 가르치시는 방식, 전달 방식, 수업 분위기, 학생들의 태도 등에 주목해서 수업 참관을 하고 실습 일지에 있는 수업참관기록 란에 수업에 대한 평가를 열심히 기록했었다.

우선 가장 놀랐던 점은 나의 지도 교사 분은 2~3년 후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학창 시절 주로 받았던 교과서와 판서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빔과 교과서 e-book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을 하신다는 점이였다.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매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가장 변화가 느린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는 듯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빔의 큰 화면을 활용해야 학생들이 책상 위에 책에 고개를 파묻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앞을 보게 되어 졸음을 깨고 수업에 집중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해주셨다.

또한 나는 학교 내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초임 교사 분들도 수업에 참관하고 싶어 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하시는 한 선생님의 수업도 참관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신 분이었고, 오랜 경력에도 항상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돋보였다. 선생님의 항상 웃으시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에 학생들의 쾌활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나 역시 수업에 빨려 들어가는 흥미를 받았다. 또한 학습지도 여전히 직접 만드시고 주기적으로 수정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항상 연구하고 발전을 추구하신다는 점에서 교과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의 교사의 열정이 돋보였던 것 같다. 또한 크고 유쾌한 목소리의 발성, 몸짓(제스처), 동선 등이 잘 조화되어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도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수업을 만들어가셨다. 열정이 느껴지는 수업, 잘 준비된 수업. 그리고 교사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도 그것을 아는 것 같다. 학생들도 그런 교사와 그 수업을 좋아하고, 바로 그런 수업이 ‘좋은 수업’이 되는 것 같다.

한편, 수학 수업이었지만, 역시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학생들에게서도 호응을 얻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교생 지도를 맡으신 연구부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지만, 수업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의 프로 정신(전문성)이 느껴졌다. 우선 학생들이 거의 지지 않는 수업이었는데, 남고에서 학생들이 거의 지지 않는 수업이란 일단 반은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또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 과목의 특성상 사칙연산 등의 간단한 계산 외에는 그다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편견을 확 깨준 수업을 하셨다. 교과서에서 이전 선생님들이 보통 건너뛰던 ‘탐구하는 수업’이라던가 ‘수학 실험실’과 같은 실생활 예시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자세히 설명하시며 이 과목의 이 부분이 실생활에서 학생들과 깊이 있게 관련됨을 증명해주시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또 수업 외의 이야기지만, 관련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 점이 좋았다.

또한 젊은 여선생님들의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학생들과의 소통이 정말 활발하다는 것이였다. 보통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매우 조용히 시키신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 질문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대답을 이끌어내시지만, 사실은 정답이 정해진 질문으로 그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시는 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젊은 여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시끌벅적하지만 유쾌한 분위기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잘 이끌어내시며 매우 활기차고 쾌활한 수업을 진행하셨다. 학생들의 장난을 적절한 선에서 받아쳐 주시고 수업 중에 유머를 섞으면서도 내용이 알차고 열정적인 수업을 하셨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활달한 제스처와 표정을 보여주시며 열정 넘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이었다.

나는 장석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현대시(자유 주제)로 4번 정도의 수업을 했고, 정철의 ‘속미인곡’이라는 고전시가 작품(지정 주제)으로 5번 정도의 수업을 했다. ‘배를 매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수업이었는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출판사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행복하게도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할 때, 내가 유념해 뒀던 좋은 수업의 핵심은 ‘교과서와 삶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수업’이었다.

글(문학)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다.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와 소설을 떠올리고, 시인이나 작가의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오히려 문학을 어렵게 만들고,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문학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술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말로 전달하기 어려운 개인의 상처나 고민에 대해서 글로 풀어냄으로써,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감정을 글로써 승화시키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모두가 잘 쓰는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글은 곧 내 자신과 감정의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인식을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고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자층이 없는 글이라도 나를 사랑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활용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내가 하는 이 수업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또 수업의 질도 올라가 가리를 바랐다. 특히 학생들의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교생인 내게 배당된 수업은 중간고사 범위도 아닌 기말고사 범위거나 시험 범위 이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속미인곡’은 기말고사 범위로 교생 대표 수업인 연구수업 주제이기도 했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부담을 느끼신다는 고전 시가를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 사실 교생 실습 기간 동안 그것은 내게 부과된 가장 큰 과제였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내가 이 작품을 가르칠 때 좋은 수업으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었다. 나아가 좋은 수업이란 이 수업(교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최소한 얻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지식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부분은 삶의 원동력이나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즉, 속미인곡의 정보나 해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학 작품이 나의 삶에 주는 명제 혹은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고, 누구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속미인곡’이라는 고전 시가 작품을 만나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속미인곡의 어려운 고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암기하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해보고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나는 현대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중의 하나인 카카오톡을 소재로 활용하여 ‘속미인톡’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속미인곡’ 작품을 소개하며 동기 유발을 했고, ‘해를 품은 달’이라는 사극 드라마를 차용하여 작품 줄거리를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제시하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줄거리를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본 뒤에는, 몇 해 전부터 화제가 되어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학생들이 패러디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책상을 돌려 모둠별로 6~7개의 조를 만들어 ‘우리가 작품의 ‘갑녀’(현대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의 MC)가 되어 ‘을녀’에게 조언한다면, 그 이별의 상황에서 떠나간 ‘임’(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라고 할 것인가?’를 토의해보도록 한 것이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갑녀’의 조언을 받아들인 ‘을녀’가 ‘임’의 마음을 돌리는 상황극을 해보도록 했다. 학생 중심의 모둠별 협동 학습, 토의 학습 등을 도입하자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들이 참여하자 조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흥미 유발에 있어서 성공했고, 또 작품 내용을 편안하고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것을 자신들 각자의 삶에 내면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는 하지만, 조별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통해 점검해본 바로는 그것도 효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을 참관하셨던 여러 선생님들께도 정말 매끄럽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며 호평을 받았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수업 자료가 참 좋이라며 내게 자료를 받아 가시기도 했다.

사실 이 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업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1~2주간 계속 수업의 흐름을 구상하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며칠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교사가 좋은 수업을 위해 정말 고민하면서 잘 준비하는 수업이야말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7. 에필로그

수업은 교육과정이 계획되고 실천되는 가장 구체적인 장이며 현실이다. 즉, 교육과정이 열리는 장인 것이다. 모든 수업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된다. 교사의 인식과 신념이 교육과정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을 통해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와 같은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수업은 상대가 있는 예술이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장이면서 수업이라는 예술적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업은 이처럼 특별한 것이지만, 특별한 것이니만큼 이런 막중함과 책임감에 수업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한 수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테지만, 수업설계안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로 완성된 어떤 결과물보다도 이번 과제물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과 그 시간들이 충분히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수업을 실행하고, 또 이를 위해 좋은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했는데, 장차 정말 우리가 미래에 국어교사가 되어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좋은 수업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진지한 물음과 함께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해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나는 특히 즐거웠다. 좋은 수업을 실행하고, 또 이를 위해 좋은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의 첫 걸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가졌던 이런 마음,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설계 및 개발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마음에서 고민하고 학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좋은 수업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꿈꿨던 수업, 내가 상상했던 수업,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내고 디자인하는 일. 그 얼마나 설레고 두근대던 일이던지. 미래의 국어교사가 되어 내가 꿈꾸는 좋은 수업을 정말 해볼 수 있기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나는 꿈꾸고 상상해본다.

## 8. 교육 실습을 마치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는 4월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은 정말 어느덧 빠르게 흘러 교생 실습 일정도 모두 끝나 있었기 때문에 짧았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분명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볼 수 있었던 알찬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길었다.

교육 실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4주차 시점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회식 모임에서 또는 면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곤 하셨다.

“교육 실습을 마치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특히 마지막 날 교장 선생님을 뵈는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게 소감을 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해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내 머릿속에서는 한 3가지 단어 정도가 떠올랐다.

1. 추억
2. 시원섭섭
3. 보람

### (1) 추억

추억, 말만으로도 그냥 무작정 설레게 만드는 이 단어.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한문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다.

안 선생님은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고 형형색색의 빛깔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어느 봄날, 역시 새싹과도 같이 파릇파릇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며, 또 여러 경험들을 하고 몸소 체험하고 겪어가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었다. ‘나는 왜 교직을 꿈꾸게 되었는가? 나는 정말 교직에 알맞은 사람인가? 나는 우리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등 인생에서 진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들과도 끊임없이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든 것이다.

다시 학교(대학교)로 돌아가서도 이 기억을 잊지 말고 꼭 좋은 교사가 되길 바란다.

교육실습 일정의 종료일인 4월 29일 금요일은 상계고등학교의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목요일이 내가 학교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반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난 날이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내가 했던 말도 그와 비슷한 것이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교생 선생님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또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잠깐 새롭게 만난 선생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교생이란 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경험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이번 교생 경험은 나의 기억 저 편 어딘가, 그 기억 한 칸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 (2) 시원섭섭

보통 대부분의 교생들이 교생 실습 소감하면, 이런 느낌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다. 교생 실습 기간 동안 나는 여러 부서의 부장 선생님들을 만나 각 부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러 선생님들 수업 참관도 하고, 다양한 반에서 실제 수업도 여러 번 해보고, 게다가 특권이라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생 대표 수업인 연구 수업도 경험해보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배웠다. 특히 남고에서 교생, 그것도 여자 교생으로서 혼자였던 나는 지도 교사 선생님의 특별 지시와 다른 선생님들의 부탁 덕분에 수업 참관을 정말 많이 해야 했다. 선생님께 수업 참관 부탁을 드려 허락을 받고 어떤 반에 수업 참관을 하면, 다른 반들에서는 “저희 반은 왜 교생 쌤 안 와요?”하고 하도 반발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2학년은 제발 모든 반(13반까지 있었다.)을 들어가라고,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특별 부탁 겸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보통 여러 명의 교생들이 오는 경우 수업 참관에 여러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원활한 수업 진행이 다소 어려워서 사실 수업 참관은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2~3번이고 많아봤자 대여섯 번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 수업 참관을 20회 이상을 해서 학교에서 나눠준 실습일지의 수업 참관록 양식을 다 채워서 또 따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참관록 양식을 받아 복사해서 작성해가며 수업 참관에 임했었다. 물론 덕분에 내 과목인 국어만이 아니라, 영어, 수학, 생활과 윤리(사회), 지구과학(과학), 미술, 체육 등 여러 다양한 과목의 수업들을 듣고 배우게 되어 유익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뭔가 학교에서의 일들을 배우고 파악해서 익숙해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버려 어느 순간 끝나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다. 시원함과 섭섭함이 공존하는 이 느낌, 시원섭섭했다.

## (3) 보람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깊게 호응하셨던 ‘보람’이라는 단어.

사실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 깊이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가치관이라던가 교직관의 중심에는 ‘보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교육실습 과제(소감문)

한 달이라는 짧은 교생 기간 동안 내가 어떤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보람을 느끼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변화해가며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은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교사….

그런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반드시.

나에게 있어서 교육 실습은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그것을 마치고 난 느낌은 시원섭섭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 꿈은 더욱 간절하고 선명해졌다.

정말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